

■ 격돌! 4·9 총선 현장

조영택-정용화 '인물론' 한판승부

20~40대 젊은층 표심 '중대 변수'

광주 서구 갑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상무신도심과 양동시장, 농촌지역인 유덕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구 특성상 서민·중산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표심이 혼재하는 지역구다. 통합민주당의 조영택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평화통일가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조영택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장이 여론조사 재경선까지 가는 피 말리는 공천경쟁을 통해 후보 등록을 전야에 분선 진출 티켓을 따냈다.

조 후보측은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더 열심히 바깥 민심을 훑고 다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조영택 후보는 "뒤늦게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지런히 지역민들을 만나 공약을 설명하고 소외계층 등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알아주실거라 믿는다"

■ 광주 서구 갑 출마 예정자

			
이름	조영택	정용화	문상필
나이	57	43	33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경력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연세대 연구교수	북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외부 리노 회장

신도심·재래시장·농촌 등 포함 다양한 표심 존재

조영택-정용화 맞대결에 문상필·국충현씨 추격

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새 정부의 호남 확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 상대후보들보다 열심히 표발을 누비고 있다.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새 정부 핫

라인으로, 여당 의원을 통한 지역 발전론'과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 정 후보측 복안이다.

평화통일가정당 문상필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국충현씨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를

광주 서구를 지역은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 12명의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경쟁에서 공천권을 따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본선을 치르게 된 지역구다. 전 차관, 전 서구청장, 전 광주부시장 등 경쟁 인물들이 공천 탈락으로 대거 뜻을 접은 상태로, 당 지지도 등에서 상대 후보들보다 앞서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얘기다.

김 전 장관은 4선 의원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해 지역 내 지명도가 높다. 김 전 장관측은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 물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 등으로 힘들게 공천권을 따낸 만큼 더욱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또 전체 유권자 11만여명 가운데 5만여명이 급호·풍암동 일대에 몰려있고 20~40대 젊은 층이 유권자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표심이 전체 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문제 등

■ 광주 서구 을 출마 예정자

			
이름	김영진	정순길	오병윤
나이	60	62	50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경력	전 농림부장관	전 광주시의회 의장	1985년 전남대학교 총학

김영진 "4선·농림부 장관 역임...강력한 야당 건설"

정순길·이동규씨도 출마...민노 오병윤씨 다크호스로

유권자들이 관심있는 정책을 제시해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맞서 싸우는 한나라당 정순길 후보는 여당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 호남 민심을 전달, 소통

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는 노동계의 지지를 앞세우며 표발을 누비고 있고 평화통일가정당 이동규 후보도 바깥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영식-박지원-이상열 '3파전'

"광양만권 중심도시 견인" 호소

전남 목포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권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상열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공천을 따낸 정영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과 함께 3파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정 전 차관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CEO'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 전 실장은 김 전 대통령의 후광과 함께 14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 장관, 민주당과 국회의원의 대변인 등을 지내며 쌓아온 경륜, 그리고 정·관계의 폭넓은 인맥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총선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박 전 실장은 "민주당과 DJ의 불화를 해소하고, 분열된 목포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임무를 맡아 선거를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목포 출마 예정자

					
이름	정영식	천성복	윤소하	최승규	박지원
나이	61	45	46	54	65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경력	전 행정자치부 차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직능정책본부 부목포시위원장	광주전남 진보연대 공동대표	대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전남 회장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민주당 '정통 적자론'에 이상열 '차세대 인물론'

정영식 '행정 CEO'강점...천성복·윤소하·최승규씨 도전

'현역의원 30% 공천 배제' 기준에 걸려 공천에서 탈락한 이상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탈락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차세대 인물론'을 내세워 표발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은 호남의 차세대 일

꾼, 지도자를 키워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에서는 천성복 후보가 표발을 깔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윤소하 후보, 평화통일가정당의 최승규 후보도 바깥 민심을 다지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 순천

순천시는 현역인 서갑원 의원이 '개혁 공천'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통합민주당 공천을 따냈다. 당초 전직 장관과 법조인, 교수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예비후보 10여 명이 치열한 공천 경쟁에 나섰으나 서 의원의 아성을 공략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서 의원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화상경마장 순천 진출을 저지하는 등 지역 현안을 잘 챙겨 왔으며, 지난 4년간 15건의 입법을 성사시키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알아줄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순천이 계속 발전하려면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기룡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출사표를 내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유권자들도 '순천이 광

■ 전남 순천 출마 예정자

				
이름	서갑원	김기룡	이수근	이정주
나이	45	46	40	59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가정당
경력	17대 의원	한나라당 순천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위원

서갑원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통과" 재선 자신감

김기룡·이수근·이정주·김완곤씨 바깥 민심 다져

양만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집권여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순천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는 이밖에 민주노동당 이수근 후보가 재변을 넓히고 있으며 평화통일가정당의 이정주 후보와 무소속 김완곤 후보도 '인물론'과 '참신성'을 내세우며 바깥 민심을 다지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正統日食 미도

확장개업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새로운 문화의 도입을 선도하는 최첨단 주방 시설,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집/수입특집

- 미도전식 39,000
- 미도해장식 19,000
- 특집 고기해 수입과장특집 19,000

※당일 50석 특별 (월요일 50석)

분주특정 상석예약 시 77일

☎ 234-0001



도청 및 75개 공공기관 광주 - 남해신도시로 대이동

전남도청일 오피스텔·상가 분양!

남해신도시 2,000여세대 분양!

061)246-1700